‘1/n’도 없고 ‘승자독식’도 없다

(역대상 7장 1~40)

1. 잇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2. 돌라의 아들들은 웃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므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이만 이천육백 명이었더라
3. 웃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잇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4.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5. 그의 형제 잇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1/n’도 없고 ‘승자독식’도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1/n’도 없고 ‘승자독식’도 없다

아이돌 그룹이나 걸 그룹 멤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여러 명이다 보니 광고에 등장 할 때에 인원이 제한 될 수가 있는데, 혼자 광고에 많이 나가는 멤버가 그룹 전체의 수입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고에 출연을 많이 해도 그 수입은 언제나 1/n로 나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룹으로서의 계약이 끝나면 단독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한은 혼자 수입을 올리더라도 수입은 1/n이 됩니다. 혹은 식사 때에도 내가 싼 것을 먹고 누군가는 비싼 것을 먹어도 전체 음식값을 1/n로 나누어서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n은 number이고 1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는 1/n이라는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승자독식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이단아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 방법입니다.

주 별로 선거인단이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직접선거를 하게 되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진영이 나머지 모든 표를 가져갑니다. 트럼프가 50.1% 득표를 하고 힐러리가

49.9%를 득표했다면 이 차이는 실제로는 미세한 차이지만 50.1%를 얻은 트럼프가 한 두 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인간 세상은 승자독식의 체제가 즐비하게 발견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갑니다. 집안이 좋거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즘 대통령 위에 올라탄 최씨 일가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독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를 보며 저자인 에스라가 족보를 언급한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의 마지막 자손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기 위해 족보를 말했고, 마음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때에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복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민의 관계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복음 사역과 선민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직업임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뒤를 이어서 무려 여섯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약속의 땅이었던 요단 서편에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 왕국을 구성하고 있던 지파 중에 여섯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 에스라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들의 직업임을 알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평생 성전 봉사를 하고 살았던 자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전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다 완성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후4: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직무로 삼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이자 직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지금 이대 교수 17명이 고발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는 최순실의 딸을 총장 이하 17명이 동원되어 시켰습니다. 본래라면 그 아이가 입학하려고 했을 때에 최순실의 문제는 부각되었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최순실은 대통령을 올라타고 대한민국에 전 방위적으로 손을 뻗었던 것인데 이것이 모든 방면에서 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 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방면의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소명이 아닌 오직 돈 버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온 관심을 쏟은 것입니다.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돈 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재정을 많이 가지고 큰 교회를 짓느냐가 목회의 성패를 가늠하

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십자가 생활화로 정해주는 말씀은 정말로 이 시대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평생 직업으로 살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 삼아서 얻게 되는 내 기업과 몫은 1/n도 아니고 승자독식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1/n이 아니라는 것은 전체를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승자독식이 아니라는 것은 패자도 승자도 없이 동일하게 전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n에 해당되는 숫자의 사람들 모두가 전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위상과 처지와 신분에 상관없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모두가 다 전체를 갖는 것인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잇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가 등장하는데 앞서 이야기 된 족보와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에서 모세가 군대를 뽑기 위해 지파별로 인구계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인구계수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만을 봐도 역사적 사실에 관심하여 족보가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족보라는 소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지파의 인원수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서 잇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온 뒤에 납달리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동편에 있던 반을 뺀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너무나 적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셀 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잇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 숫자가 나오는데 전체가 아닌 일부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아셀 지파의 인구 숫자가 나옵니다. 가운데 세 지파에서는 인구 숫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구 숫자를 언급한 본장의 의도가 본장 전체를 지배하는 가운데, 인구 숫자가 나오지 않는 중간의 세 지파는 그 의미를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자체도 이상하게 쓰여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족보의 경우에는 므낫세의 5대 손인 슬로브핫의 딸들을 아들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현 시점에서 족보적인 정확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 숫자를 썼을까요? 인구 숫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씩 세어져야 합니다. 지파별 족보별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별 혈통별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의 총합을 모두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전체

를 가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분배 받을 때에 열두 지파가 나눠가졌지만 이 은혜는 각자가 전체를 갖는데 이것은 곧 구원의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직업이 의사든 택배기사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 진짜 직업인 십자가 생활화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만족해져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재벌들은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재벌은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업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레위인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음으로서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구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값어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 삼을 때에 지구 전체보다도 더 큰 값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것을 잇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아셀 지파의 숫자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의 납달리 자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왜 언급된 것일까요?
납달리 지파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이 빌하의 자손이라는 내용인데, 빌하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몸종입니다. 이 한 줄이 뜻하는 것은 납달리 지파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공헌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고,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납달리 지파의 위상이 그토록 낮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편없는 납달리 지파를 언급한 것은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는 위치를 가진 자라도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고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전부 가질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설령 계집종인 빌하의 뱃속에서 나온 후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 최상의 가치를 각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앞서 어떤 지파에게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14~16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 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 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 마길은 훕빔과 숩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라고 하는데 아내, 아람 여인, 소실, 누이, 딸이 나오는데 여자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계수에서 조차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400~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음이 그의 옆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고 살 때에 대제사장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은총과, 납달리 지파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은총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숫자에 들지도 않았던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천하가 개벽할만한 혁명적 변화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와는 정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 왕국의 주도적 지파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 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걸출한 영웅을 배출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납달리 지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계집의 몸종에서 태어난 너무나도 보잘 것 없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총의 전체를 1/n도 없고 승자독식도 없는 패자도 승자도 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고 낮음도 있고 높음도 있고 단체가 있고 내가 속한 집단과 나라와 민족이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였더라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내가 다 나누어 갖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전체를 갖는 특징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돈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부자가 되어서 돈을 전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높은 자리나 승진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벌어서 만족하므로 승진에 대해서 전혀 갈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쁜 아빠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는 오늘날의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우리의 몫과 기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전체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전체를 가진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역할이 1/n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1/n로 성취될 때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납달리 지파 사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전체를 갖고 지구의 모든 가치를 팔아도 전혀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의 기업이 내 몫이므로 십자가 생활화를 직업으로 삼아서 허락하신 전체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허락하신 은혜의 전체를 나 혼자 독식하므로 지구 전체를 팔아서 내 앞에 갖다 놓아도 갖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